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을 고려한 초등 합창 수업 설계

Designing Elementary Choral Instruction Based on Prepubescent Children's Vocal Development

손승혁*

SeungHyeok Son 

초록 본 연구는 초등 합창 수업의 운영 방식을 발달 기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에 기초한 수업 설계 틀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 음성 발달 연구와 학교 현장의 합창 수업 운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합창 수업은 학예회 및 외부 발표 중심의 성과 지향적 구조에서 일정한 음역과 음색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성기 이전 아동은 높은 기본 주파수, 미성숙한 성대 조직, 제한된 호흡·발성 협응 능력으로 인해 반복적 가창과 고정된 음역 요구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발달 특성을 반영한 합창 수업 설계의 핵심 준거를 도출하고, 준비, 소리 탐색, 앙상블 활동, 제재곡 학습, 표현 및 성찰로 구성된 교수·학습 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 합창 수업을 발달 기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

주제어: 초등 합창 수업, 아동 음성 발달, 발달 기반 수업 설계, 합창 교육, 가창 지도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lementary choral instruction from a development-based perspective and proposes an instructional framework based on the vocal characteristics of prepubescent children. To this end, studies on children's vocal development and instructional practices in school choral settings were analyzed. The findings show that elementary choral instruction is often organized around performance-oriented practices associated with school events, emphasizing fixed pitch ranges and uniform vocal timbre, which do not sufficiently reflect children's developmental vocal conditions. Prepubescent children may experience difficulty with repetitive singing and rigid pitch demands due to high fundamental frequency, immature vocal fold structures, and limited respiratory-phonatory coordin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rives key principles for choral instruction reflecting children's developmental vocal characteristics and proposes an instructional framework consisting of preparation, vocal exploration, ensemble activities, repertoire learning, and reflection.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reconstructing elementary choral instruction from a development-based perspective.

Key words: elementary choral instruction, children's vocal development, development-based instructional design, choral education, singing instruc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baritone@korea.kr

Adjunct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250 Taeseongtaeyeon-ro,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6, Reviewed (Revised): 17 April 2026 (4 May 2026), Accepted: 15 May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초등학교 시기의 합창 활동은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매개로 음악을 경험하고, 타인의 소리와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음악적 표현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소리가 일정한 리듬과 음높이 안에서 연결되며 형성되는 집단적 가창(group singing) 활동으로, 이러한 음악적 관계의 구성 자체가 학습의 핵심을 이룬다. 이에 따라 합창은 단순한 노래 부르기 활동을 넘어, 공동의 음악적 경험을 통한 심미적 체험과 협력 학습을 함께 경험하는 수업 활동으로 정립되어 왔다.

아동 음악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합창을 개인의 수행 결과보다 공동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석해 왔다. 웰치(W. Welch)와 필립스(K. Phillips)는 합창 참여가 개인의 가창 능력 향상을 넘어 음악적 관계 형성과 집단적 경험의 축적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강조하며, 합창을 경험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설명하였다(Welch, 2006; Phillips, 2014). 이러한 관점은 이후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합창 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Welch et al., 2014; Dewanckele et al., 2025). 아울러 국제음악교육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ISME)를 중심으로 한 국제 음악교육 담론에서도 합창을 포함한 음악 활동을 성취보다 참여 과정과 경험의 질에 초점을 두어 조명하는 관점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합창을 결과 중심의 수행 활동이 아닌, 음악적 공동체 경험을 형성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재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및 전문 단체의 논의와는 달리, 국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초등 합창 수업은 학예회나 학교 행사와 같은 외부적 요구와 결합되어 학습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조건 속에서 합창 수업은 일정한 음높이의 정확성이나 음량 확보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이는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학습 체계로 조직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단기간에 외형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음악 학습과 음성 발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변성기 이전의 아동은 음성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성장 과정에 있으며, 발성 조절 능력과 음성 사용 방식에서 성인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Fussi, 2010; Welch, 2012, 2025). 이 시기의 아동은 말소리와 연결되는 흉성 중심의 발성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발달 단계에 따른 음성 사용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아동 음성 연구는 주로 변성기 시기의 음성 변화와 관리에 집중되어 왔으며, 변성기 이전 단계의 음성 발달과 이를 수업 설계에 연결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합창 수업에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성인 기준에 가까운 음역 사용이나 지속적인 고음 발성을 요구할 경우, 아동은 흥성 위주의 힘 있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음성 긴장이나 발성의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의 목소리가 집단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맞추어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음성 사용 부담이 누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교사의 개인적 숙련이나 경험의 문제로 환원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초등 합창 수업에서 요구되는 것은 성악적 발성 기법을 전달하는 전문 기술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 특성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음성 사용을 판단하고 수업 조건을 조정하는 교육과정적 전문성이다. 합창 수업은 단일한 음색이나 결과 중심 평가에 의해 조직되기보다, 아동의 음성 상태와 참여 양상을 고려한 수업 설계를 통해 그 교육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하여, 초등 합창 수업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발달 단계 관점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아동의 음성 사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아동 음성 발달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문헌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개념적 분석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의 기준과 구조를 도출하는 개념적 설계 연구(conceptual design study)이다. 이에 따라 음성의학적 진단이나 전문적인 성악 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논의 범위는 학교 음악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판단에 한정한다. 아울러 정규 교실 수업이라는 제한된 교육 환경을 전제로 하며, 실제 수업 조건 속에서 적용 가능한 설계 틀과 판단 기준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은 초등 합창 수업 설계에 어떠한 교육적 요구를 제기하는가?

둘째, 현재 초등 합창 수업은 발달적 관점에서 어떠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가?

셋째,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발달 기반 합창 수업(development-based choral instruction)은 어떠한 구조로 설계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따라 아동 음성 발달 특성과 초등 합창 수업의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성하고, 발달 기반 합창 수업 설계 원리와 교수·학습 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교수·학습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보다, 교육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틀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며, 초등 합창 수업을 발달 적합한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I.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과 합창 수업 설계의 이론적 기준

본 장에서는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을 생리적·음향적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를 초등 합창 수업의 설계와 운영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준거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음성학 및 음악교육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학교 합창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수업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발달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 변성기 이전 아동 음성의 생리적·음향적 특성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은 성대의 길이와 두께, 점막 조직의 발달 상태, 발성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근 체계 등에서 성인의 음성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Fussi, 2010; Welch, 2012, 2025). 일반적으로 성인의 성대 길이는 남성의 경우 약 1.75-2.5cm, 여성의 경우 약 1.25-1.75cm 범위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변성기 이전 아동 성대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약 0.6-1.0cm 수준에 머문다. 후두 위치 또한 성장 과정 중 경추 제3-4번에서 제5-7번 수준으로 점차 하강하며, 이러한 해부학적 조건은 공명 공간과 음색에 영향을 주어 성인과 동일한 발성 체계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음성의 물리적 특성, 특히 음높이를 결정하는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¹⁾의 발현 양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푸시(F. Fussi)는 신생아 음성의 평균 기본 주파수를 약 445Hz로 제시하며, 성장 과정에서 성대의 길이와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F0가 점진적으로 하향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Fussi, 2010). 이러한 변화는 가창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라기보다, 발성 기관의 성장에 수반되는 발달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성인 음성의 기본 주파수가 여성의 경우 200-300Hz, 남성의 경우 100-150Hz 범위에 분포하는 것과 비교하면,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난다.

한편 아동 음성의 특성은 성대 길이나 기본 주파수의 차이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아동의 성대 점막층(mucosal layer)과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은 성인처럼 다층 구조로 완전히 분화되지 않은 미성숙한 조직 상태를 유지한다(Fussi, 2010; McAllister et al., 1994). 이러한 조직 특성은 성대 진동의 미세 조절 능력과 음색 변화 폭을 제한하며, 긴 음가나 반복적인 발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진동 효율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1) 성대의 진동에 의해 생성되는 기본 주파수를 의미하며, 음높이를 결정하는 주요 물리적 요소이다.

점탄성(viscoelastic property)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속적 발성이 음성 피로(vocal fatigue)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시기에는 성대의 접촉 양상(vocal fold contact pattern)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성대 접촉 시간이 짧거나 불균등하게 나타나기 쉽고, 일정한 접촉 압력을 장시간 유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음량 확보나 음정 유지 과제가 과도한 근육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시간 가창 환경에서는 발성 부담이 누적되기 쉽다. 아울러 호흡과 발성의 협응 능력(respiratory-phonatory coordination) 및 발성을 조절하는 신경근 조절(neuromuscular control) 능력도 아동은 성장 과정에 있다. 아동은 전체적인 음량이나 음높이를 중심으로 발성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성인과 같은 미세 조절 중심의 발성 과제에서 부담을 크게 경험할 수 있다(McAllister et al., 1994; Phillips, 2014). 이러한 요소는 초등 합창 수업에서 단일 기준에 따른 음역 · 음량 · 발성 요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교육적 조건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은 해부학적 구조, 음향적 특성, 조절 능력의 발달이 상호 연관된 발달 과정 속에 있으며, 음성의 안정성과 지속성(vocal endurance)은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음성 특성은 고정된 기준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합창 수업 설계는 이를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음성 발달 특성에 따른 합창 수업 설계의 이론적 기준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은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발달 조건을 전제로 하며, 합창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집단적 가창 환경과 결합하여 발성 부담으로 전환될 조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초등 합창 수업은 성인 가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아동의 음성 발달 조건에 부합하도록 수업의 요구 수준과 활동 내용을 조정하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를 위한 세 가지 설계 준거를 제시하며, 이는 발달 기반 합창 수업의 관점에 토대를 둔다. 이때 해당 접근은 일반적인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한 교수 · 학습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음성 발달과 발성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설계의 기준을 설정하는 관점에서 제시된다.

1) 발달 단계에 기반한 음성 사용 기준의 설정과 조정

합창 상황에서는 아동이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음성을 유지하며 집단의 소리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설정된다. 데모레스트(S. Demorest)와 클레멘츠(A. Clements)는 이러한 요구를 ‘음정 일치 과제(pitch-matching demand)’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집단의 소리에

자신의 음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음성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발성 스트레스(vocal load) 및 가장 참여의 위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웰치 또한 해당 상황에서 일부 아동이 실제 발성 대신 목소리를 줄이거나 입 모양만 따라 하는 방식으로 참여 양상이 변화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Welch,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초등 합창 수업에서 지향되는 소리는 성인의 성악적 기준에 따른 강한 음량이나 넓은 음역보다는 아동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리로 조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합창에서의 음성 사용은 아동이 과도한 힘이나 긴장 없이 발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제재곡 선정 과정에서 실제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중심 음역(tessitura)²⁾을 고려하여 요구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아동의 가창에서 흔히 언급되는 c^1 - f^2 음역 범위³⁾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규범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학급 내 음성 발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음역의 절대적 범위보다는 제재곡에서 나타나는 음역의 분포, 음가의 지속성, 반복 구조 등이 아동의 음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조, 옥타브 이동, 특정 구간의 단순화와 같은 운영 방식은 제재곡의 요구 수준을 조정하여 아동의 음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업 설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말소리 기반 자연 발성 중심 가창 지도

초등 합창 수업에서의 발성 지도는 아동의 말소리에서 비롯되는 자연 발성(natural voice use)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 발성은 아동의 일상적인 말소리와 연속선상에서 형성되는 발성 방식으로, 과도한 근육 경직이나 인위적 조작 없이 자신의 음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발성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음성을 무리 없이 사용하며 다양한 소리 환경 속에서 음색과 균형을 경험하도록 돕는 발성 원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방임적인 소리 사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음성 상태를 인식하면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소리를 내고 조절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적 태도에 기반한다. 웰치는 아동의 가창이 발달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참여 경험이 이러한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조건임을 제시하였다(Welch, 2006). 이는 자연 발성 중심의 가창 지도가 아동의 음성 발달과 가장 참여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음성 중심 접근은 아동의 음성을 결과

2) 특정 곡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심 음역대를 의미하며, 가창 시 편안한 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가온도(C4)부터 그 위의 옥타브 파(F5)까지의 음역을 의미한다.

산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발달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으로 재개념화하며, 이에 근거한 수업 설계의 기준을 제시한다.

두성 중심의 소리 사용(head voice-dominant production)은 자연 발성의 원리를 수업 맥락에서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변성기 이전 아동에게 두성 중심의 가벼운 소리는 음성 부담을 완화하고, 고음역 사용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긴장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Welch, 2012; Phillips, 2014). 이때 가성(falsetto)은 호흡의 흐름과 연결된 소리를 경험하도록 하는 매개로 활용되며, 말소리와 가창 발성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의 지도는 양자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소리에 기반한 자연 발성 중심의 가창 지도는 아동이 자신의 음성 사용 가능 범위를 탐색하고 확장하는 경험을 축적하게 하며, 이는 음성 발달과 가창 참여 지속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교육적 토대로 작용한다.

3) 유연한 성부 운영과 과정 중심 수업 설계

초등 단계의 성부 운영과 파트 구성은 고정된 역할 분담보다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음성 사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성부를 초기에 고정할 경우 특정 음역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거나 일부 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선율에서 출발하여 제한된 범위의 2성부로 점진적인 확장을 유도하거나, 성부를 순환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은 음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합창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때 성부는 결과 산출을 위한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합창 경험을 구성하는 학습 과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또한 수업의 목표는 음정의 정확성이나 균일한 음색의 확보와 같은 결과 중심의 성취에 두기보다, 아동이 자신의 음성으로 합창 경험에 참여하고 소리를 맞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음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 중심 목표를 포함한 설계는 참여의 지속성과 발달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운영 원리로 연계된다.

<Table 1>은 합창 수업에서 요구되는 음역, 발성 강도, 가창 지속 조건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정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참고 준거로 활용된다. 이 준거는 다음 장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 방안과 수업 운영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Table 1> Choral instruction design criteria based on children's vocal development (Demorest & Clements, 2007; Fussi, 2010; Welch, 2006)

Vocal developmental factors	Considerations in choral instruction design
Vocal fold length	Avoid excessive vocal range demands Minimize fixed voice-part assignments
Fundamental frequency (F0)	Limit prolonged singing on the same pitch
Mucosal wave	Use caution with long note values and forceful vocal repetition
Respiratory-phonatory coordination	Design long phrase structures with caution
Neuromuscular control	Minimize tasks requiring fine vocal control

III. 초등 합창 수업의 교육적 의미와 변성기 이전 아동 관점에서의 구조적 한계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초등 합창 수업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정리하고,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수업 방식이 변성기 이전 아동의 가창 경험에서 어떠한 한계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한다. 초등 합창 수업은 집단적 가창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 수업 운영 과정에서는 아동의 발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합창 수업의 교육적 의미를 다섯 가지 범주로 체계화하고, 수업이 조직되는 구조가 아동의 음성 사용과 참여 경험에 미치는 제약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코다이(Z. Kodály)의 음악교육 철학에서 강조되는 자연스러운 음성 사용과 웰치(Welch, 2006)가 제시한 아동 가창 발달 관점에서의 참여 중심 가창 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1. 초등 합창 수업의 교육적 의미

초등학교 단계의 합창 수업은 노래하기라는 핵심 음악 활동을 집단적 맥락 속에서 경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합창은 개인의 가창 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음악이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타인의 소리와 관계를 맺으며 음악적 경험을 확장해 가는 학습 활동이다.

1) 소리 경험에 기반한 음악 인식

합창 수업은 아동이 소리 경험을 통해 음악을 인식하도록 하는 학습 맥락을 형성한다. 음악을 실천적 활동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음악적 의미가 완성된 결과물에 고정하기보다, 소리를 사용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다(Elliott, 1995; Elliott & Silverman, 2015). 합창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매개로 음악을 직접 경험하며, 소리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음악적 자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음악 학습은 특정 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리 경험을 통해 음악을 이해해 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2) 음악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결합되는 합창 활동은 음악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상호작용적 경험을 제공한다. 여러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합창 상황에서는 음악적 의미가 개인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보다, 소리 간의 반응과 상호 조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Burnard, 2012; Custodero, 2005). 아동은 타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에 반응하며, 자신의 소리를 조정하는 경험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은 음악을 개인 수행이 아닌 관계적 활동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합창 수업을 집단적 음악 경험으로 재구성한다.

3) 참여 중심 · 과정 중심 학습 구조의 형성

초등 합창 수업은 참여 · 과정 중심의 음악 학습 구조를 형성한다. 참여 가능성과 접근성을 증시하는 음악교육 관점에서는 학습의 가치를 결과적 성취보다 참여의 지속성과 경험의 누적으로 설명한다(Abramo, 2011; Allsup, 2016). 합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수준에서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집단 활동으로, 이에 따라 평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음악 활동은 일부 아동의 성취를 드러내는 장이 아닌 공동의 학습 경험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구조는 초등 단계 음악 학습 기회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적 · 정서적 성장 경험의 통합

음악 활동으로서의 합창은 사회적 · 정서적 성장 경험을 통합한다. 합창 수업에서는

협력, 책임, 배려와 같은 사회적 태도가 음악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된다(Blagojević & Habe, 2026; Hallam, 2015; Welch et al., 2014). 아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의 소리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축적한다. 이러한 경험은 동료 학습자들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참여하는 음악적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며, 합창 수업의 교육적 가치를 정서적 차원까지 심화시킨다.

5)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학습 맥락 제공

합창 활동은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 친화적이며 학습자 친화적인 음악 활동으로 기능한다. 아동의 가창 발달과 음성 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집단적 가창 활동이 개인 간 발달 차이를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을 강조한다(Dewanckele et al., 2025; Rutkowski, 1997; Welch & Howard, 2002). 합창 수업에서 아동은 자신의 목소리가 수업 안에서 수용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하며, 이를 통해 음악적 자아 인식을 형성해 간다. 특히 변성기 이전 아동에게 합창은 무리한 음성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가창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 맥락을 제공한다. 이는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중요한 교육적 근거를 확보한다.

이상의 논의는 초등 합창 수업이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습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합창 수업 운영의 구조적 한계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초등 합창 수업은 학예회, 학교 행사, 대외 발표 등 다양한 제도적·환경적 조건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성과 중심으로 조직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수업의 목표는 과정 중심의 학습보다 일정 수준의 완성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며, 제한된 기간 안에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형태로 조직된다.

이와 같은 외부적 요구는 수업 시수와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등 합창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내용이 연속적으로 축적되기보다, 특정 시기나 행사 준비 기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한된 수업 시수와 시간표 운영 여건 속에서 합창 수업은 강화와 축소를 반복하며, 결과적으로는 단기적 집중형 운영 방식으로 고착된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수업 지도 방식의 획일화를 초래한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 조건 속에서 교사는 집단 전체의 소리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식에 의존하게 되며, 성부를 고정하거나 반복 중심의 연습이 주요 지도 전략으로 활용된다. 이 같은 방식은 수업 관리

와 결과 산출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아동의 다양한 음성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습 경험을 제한한다.

한편 운영 여건의 제약은 교사의 전문성 형성과도 연결된다. 초등 합창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아동 음성 발달이나 집단 가창 지도에 특화된 체계적 연수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합창 지도는 개인적 경험이나 기존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수업 구조를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개별적 소리는 이러한 지도 구조 속에서 음악적 판단이나 조율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기보다,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정되는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쉽다. 이에 따라 합창 수업에서의 가창 활동은 목소리를 활용하여 정해진 기준을 재현하는 수행 활동으로 인식되며, 음악 경험의 축소로 결부된다.

합창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반복될수록 수업 과정에는 암묵적인 기준이 고정된다. 특정 음색, 소리의 크기, 일치 정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환경에서 아동은 자신의 상태를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외부 기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가창을 이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합창 수업은 지속적인 음악 학습의 과정이라기보다 특정 시점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며, 교육적 잠재력 또한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 (Fernández-Herranz & Ferreras-Mencia, 2023; ISME, 2016).

이와 같은 운영 구조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조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현장에서는 학급 규모, 제한된 수업 시간, 아동 간 음성 발달 편차, 참여도 차이 등의 조건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합창 수업 운영 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며, 수업 과정에서 아동의 음성 사용과 참여 경험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와 같은 제약은 일부 아동의 참여 위축이나 소극적 가창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변성기 이전 아동의 관점에서 초등 합창 수업의 한계는 개별 교사의 지도 방식이나 역량의 문제로 환원되기보다, 성과 중심 운영 구조, 단기 편성 방식, 획일적 지도 관행, 제한된 전문성 축적이 중첩되며 형성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교사의 지도 방식과 전문성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운영 구조에서도 아동의 가창 경험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es of elementary choral instruction and mismatch with vocal development

Instruction type	Instructional characteristics	Identified problems	Mismatch with vocal development
Performance-oriented choral instruction	Event-and performance-centered, emphasis on final product	Reduction of process, result-oriented learning	Difficulty reflecting developmental variability
short-term intensive choral instruction	Concentrated rehearsal within a limited period	Excessive repetition, accumulation of vocal fatigue	Conflict with gradual vocal development
Uniform instruction-based choral instruction	Fixed voice parts, emphasis on tonal uniformity	Suppress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Lack of consideration for individual vocal development
Convention-dependent choral instruction	Reliance on prior experience and established practices	Limited adjustment based on developmental needs	Insufficient reflection of developmental levels

<Table 2>는 아동 음성 발달 및 합창 교육 관련 선행연구(Demorest & Clements, 2007; Fussi, 2010; ISME, 2016; Welch, 2006)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합창 수업 운영 유형과 그에 따른 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표는 특정 수업 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수업 운영 방식이 아동의 음성 발달과 불일치하는 양상을 분석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틀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후 장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 방안이 수업 구조와 운영 원리의 조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IV. 초등 합창 수업의 발달 기반 설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초등 합창 수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설계 틀(instructional design framework)을 제시한다. 이는 특정 발성 기법이나 합창 테크닉을 훈련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아동의 음성 특성과 수업 맥락을 고려하여 합창 운영을 설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천적 준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수업 설계 틀은 II장에서 정리한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과 III장에서 도출된 합창 수업의 구조적 한계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구성한 것이다. 즉, 음성 발달 조건과 실제 수업 운영 환경 간의 간극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교수·학습 설계 원리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설계는 정규 음악 교실 수업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다양한 수준의 아동이 혼재된 학급 상황을 전제로 하며, 별도의 전문 합창 훈련 없이도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구성된다. 또한 특정한 수업 절차를 고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수업 상황과 학습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운영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1. 합창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유의점

초등 합창 수업에서 교사는 단순한 지휘나 발성 지도의 역할을 넘어, 수업 전반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교육적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레퍼토리 구성, 연습 환경 조성, 지도 방식에 대한 교사의 판단은 합창 경험의 성격과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합창 수업 운영 과정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유의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한다.

1) 레퍼토리 구성에서의 발달적 적합성 고려

레퍼토리는 단순히 곡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합창 활동을 어떤 학습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는지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특히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은 발달 과정에 따른 음성 사용 조건의 차이를 지니므로, 레퍼토리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레퍼토리 선정은 곡의 완성도나 선호에 앞서, 발달 특성과 수업 맥락을 고려한 과제 수준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쉬운 곡은 음악적 도전 과제를 제공하지 못해 참여의 밀도를 낮출 수 있으며, 과도하게 어려운 곡은 음성 부담과 반복적 실패 경험을 초래하여 가장 활동 전반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동의 음성 발달 단계에 맞는 가창 요구 수준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웰치(Welch, 2012)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레퍼토리는 난이도의 양극단을 피하고, 음역 분포, 프레이즈 길이, 반복 구조, 성부 구성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아동의 정서적·문화적 경험과 연결되는 레퍼토리의 활용은 참여 동기 형성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음악을 경험 중심의 활동으로 이해하는 관점(Elliott, 1995; Elliott & Silverman, 2015)에 따르면, 학습자는 자신의 삶과 연결된 음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악 소재나 친숙한 대중 음악을 합창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이러한 참여 조건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레퍼토리는 합창 음악의 전형적 양식과 소리 조직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 작품과 병행하여 운영할 때, 음악적 경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레퍼토리는 개별 곡의 선택을 넘어, 아동의 음성 발달 조건과 참여 경험을 조절하는 수업 설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레퍼토리는 수업의 흐름에 맞추

어 단계적으로 배열·운영되는 교육적 구조로 기능한다.

2) 일관된 합창 수업 운영 체계 정립

초등 합창 수업에서 형성되는 소리는 개별 아동의 발성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연습 환경과 수업 운영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소리를 직접 교정하는 데에 앞서,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특히 합창 수업은 예측 가능한 일정한 운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때 아동의 참여 정착과 학습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동일한 자리 배치, 일관된 수업 절차와 안내, 명확한 활동 전개 방식은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 수업의 흐름을 분절하지 않으면서 아동이 집단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인식하고 조화시키는 배경을 마련하는 조건이 된다.

리허설의 시간 운영 또한 이러한 구조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연습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며, 사전에 곡목과 순서가 제시되는 방식은 아동이 수업의 전개를 예측하여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합창 수업을 즉각적인 통제의 장면이 아니라, 아동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학습 환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3) 수업 조건 조정을 통한 가창 지도

변성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초등 합창 수업에서의 가창 지도는 특정 발성 기법의 습득을 목표로 하기보다,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집단 속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조정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사의 개입은 소리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보다 음역 설정, 반복 구조, 연습 속도, 성부 구성과 같은 수업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음정이나 음색의 불안정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이를 개별 아동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수업 설계 요소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블렌딩(blending)은 아동이 서로의 소리를 인식하고 조화시키는 감각을 기르는 학습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블렌딩은 단순한 음량 조절과 달리,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타인의 소리를 인식하고 조화시키는 기초적인 소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목소리를 억제하는 방식보다, 가볍고 편안한 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집단의 소리와 조화시키는 감각 형성에 초점을 두는 접근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블렌딩은 전문적인 음색 통일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기초적 소리 경험의 수준에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수업 조건 조정

중심의 지도는 아동의 음성을 수업 설계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음성 중심 접근에 기반한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소리를 직접 교정하기보다, 아동의 음성 반응을 관찰하고 음역, 반복 구조, 연습 속도 등의 조건을 조정하는 데에 있다.

2. 변성기 이전 아동을 고려한 합창 수업 단계별 교수·학습 과정

본 절에서는 초등 합창 수업을 준비(warm-up), 소리 탐색(vocal exploration), 앙상블 활동(ensemble singing), 제재곡 학습(repertoire learning), 표현 및 성찰(performance and reflection)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고정된 절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 상황에 따라 선택·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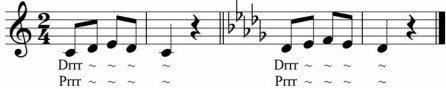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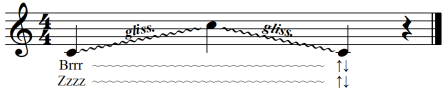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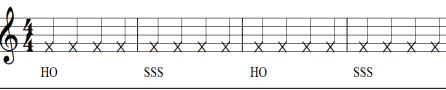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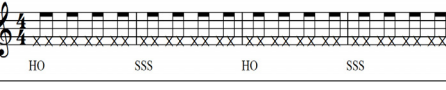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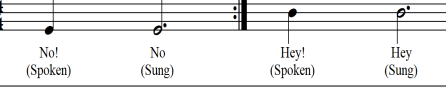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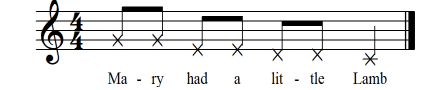
특히 본 과정은 정규 음악 교실 수업을 전제로 하며, 제한된 수업 시간과 아동 간 발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업 맥락에 따라 활동이 조정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제시된 활동은 전문적인 발성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아동의 음성 반응을 관찰하고 수업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탐색적 과제에 해당한다. 이는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과 가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원리를 반영한 것이며, 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 강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웰치(Welch, 2012)의 논의에 근거한다.

1) 준비 : 음성 사용의 기초 형성

준비 단계는 합창 활동을 위한 음성 사용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합창의 난이도나 음악적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아동이 자신의 음성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음성 사용은 ‘소리를 잘 내는 것’이 아니라, 호흡-성대 진동-소리 산출이 무리 없이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준비 단계 활동은 음역 확장이나 음량 증대를 도모하기보다는, 말소리와 연결되는 발성, 짧은 음형, 반복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한다. 입술떨기(lip trill)나 호흡, 말하기 기반 위밍업은 신체 긴장을 완화하고 호흡과 소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준비 단계의 과제로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이후 수업 단계의 요구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 판단 근거를 형성한다.

<Table 3> Activities in the warm-up phase⁴⁾

Instructional components	Exploratory tasks
Lip trill Tongue trill	
	
Staccato breathing	
	
Chanting	
	
Singing echo	Teacher : ♪ Do-Re-Mi ♪ / Student : ♪ Do-Re-Mi ♪ Teacher : ♪ Do-Mi-Sol ♪ / Student : ♪ Sol-Mi-Do ♪

<Table 3>에 제시된 활동은 특정 발성 기법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아동의 음성 반응을 관찰하고 조절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과제(exploratory tasks)에 해당한다. 이들 활동은 호흡의 흐름과 성대 진동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돕고,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짧은 모방과 반복, 교사의 즉각적인 음성 모델 제시는 아동이 자신의 소리를 집단의 소리 속에서 안전하게 조정해 볼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교사는 제시된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량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거나 긴장이 동반되는 경우, 요구 수준을 낮춘 상태로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소리 탐색 : 음성 전환 감각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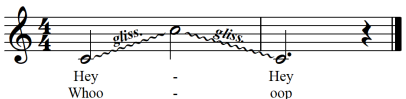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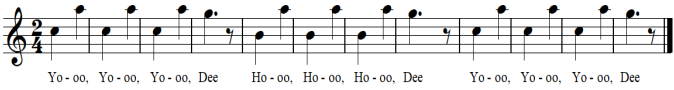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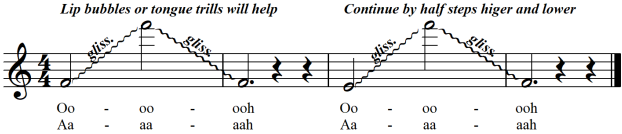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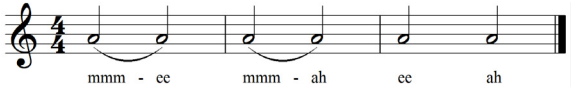
준비 단계를 통해 기초 음성 사용 상태가 형성되면, 소리 탐색 단계에서는 가벼운 소리

4) Source: Reconstructed by the author based on Welch (2006, 2012)

전환과 음정의 이동을 부담 없이 경험하도록 돕는다. 변성기 이전의 아동은 음높이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성대 긴장과 발성 부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음정이나 고음을 유지하기보다 음성 변화 과정에 대한 감각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싸이렌 소리, 요들, 동물소리, 바람소리 모방과 같은 활동은 놀이적 접근을 통해, 아동이 성대 긴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소리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해당 활동이 반복될수록 아동의 음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신체 긴장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이후 앙상블 활동과 제재곡 학습 단계에서 요구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Table 4> Activities in the vocal exploration phase⁵⁾

Instructional components	Exploratory tasks
Vocal glide	
Yodel practice	
Sound imitation (Siren sound, etc.)	<i>Lip bubbles or tongue trills will help</i> <i>Continue by half steps higher and lower</i> 
Humming	

<Table 4>의 활동은 놀이적 · 탐색적 활동을 통해 아동이 음높이 변화를 부담 없이 경험하도록 설계된 예시이다. 이 단계는 이후 수업 전개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간 조정 단계의 역할을 한다.

3) 앙상블 활동 : 목소리 조화를 이루는 경험의 확장

소리 탐색 단계를 거친 후, 수업은 앙상블 활동으로 확장된다. 앙상블 활동 단계는 개인의 음성을 타인과의 소리 경험 속에서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의 핵심은 개별 소리의 정확성을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데 있지 않으며, 아동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그에

5) Source: Reconstructed by the author based on Welch (2006, 2012)

반응하며 자신의 소리를 조정하는 경험을 반복하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데에 있다.

변성기 이전 아동에게 고정된 성부 배치(fixed part assignment)는 음역 부담과 발성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특정 역할 수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초등 수준에서는 단선율에서 출발하여 제한된 범위의 2성부, 간단한 돌림노래(canon), 오스티나토 등 구조적으로 유연한 성부 구성을 통해 하모니 경험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이 적절하다. 이러한 운영은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고정된 역할로 수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집단 속에서 변화 가능한 소리 요소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특히 오스티나토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음형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이 복잡한 음정 판단이나 성부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없이 앙상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의 오스티나토는 정교한 성부 독립을 요구하는 합창 기법으로 이해되기보다, 단순한 반복 음형을 기반으로 아동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 앙상블 활동의 수준에서 활용된다. 반복되는 음형 속에서 아동은 자신의 소리를 유지하면서도 주변 소리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이는 합창에서 요구되는 청각적 주의 집중과 상호 조율의 기초 경험으로 이어진다. 이때 교사는 특정 성부의 정확성보다, 소리가 결합되는 방식과 집단적 울림을 인식하는 경험에 초점을 둔다.

<Table 5> Activities in the ensemble phase⁶⁾

Instructional components	Ensemble activities
Blending practice	
Two-Parts Ostinato (e.g., Tideo, American folk song)	

<Table 5>의 활동은 고정된 파트 배치를 전제하지 않고, 짧은 구간의 순환 경험을 통해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제재곡 학습 단계에서 보다 복합적인 성부 구성과 음악적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은 따라 부르기과 반응하기 수준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며, 음정 정확성이나 성부 완성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6) Source: Reconstructed by the author based on Welch (2006, 2012)

4) 제재곡 학습 : 구간별 제시와 학습 강도 조절

합창 수업에서 제재곡은 완성된 음악적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되기보다, 앞선 단계에서 형성된 음성 사용 경험과 양상불 감각을 음악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조정하는 매개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재곡 전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방식은 음성 피로를 누적시키거나, 특정 음역이나 성부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창 참여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곡 학습은 곡 전체를 완주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기보다, 수업 목적과 아동의 음성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유연한 학습 자료로 다루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재곡 학습은 곡 전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음악적 맥락을 유지한 상태에서 학습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활용 중심의 구성으로 설계될 수 있다. 교사는 제재곡의 음역 분포, 반복 구조, 프레이즈 길이를 검토하여 특정 구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허밍·모음 발성, 단선율 중심 구조의 재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요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은 아동에게 과도한 음성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음악 안에서 소리를 사용하고 조절하는 경험을 지속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제재곡으로도 수업 차이나 아동의 상태에 따라 활용 구간과 활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차시에서는 음성 사용의 안정성을 우선하여 제한된 음역의 구간만을 활용하고, 다른 차시에서는 양상불 감각을 중심으로 간단한 성부 분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제재곡 학습을 단조로운 반복 훈련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 사용 경험을 축적해 가는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 단계의 핵심은 제재곡의 선택이나 활용 방식이 사전에 고정된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수업 중 관찰되는 아동의 음성 반응과 참여 양상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조정되는 점에 있다. 교사는 아동의 음성 긴장, 과도한 음량 증가, 소리 회피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에 따라 활동의 범위와 요구 수준을 조절한다. 즉, 제재곡 학습은 특정 악보 예시에 수렴되는 활동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수업 강도와 소리 사용 범위를 조율하는 조정 중심의 학습 과정으로 기능한다.

5) 표현 및 성찰 : 음성 사용 경험의 성찰과 재구성

합창 수업의 마지막 단계는 가창 결과의 완성도나 수행 수준을 평가하기보다, 수업 과정에서 경험한 음성 사용과 합창 참여 경험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성찰 활동에 초점을 둔다. 이때 성찰은 반성이나 계량화를 위한 절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소리 사용 경험을 인식하고 언어화함으로써 이후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메타인지적 학습 과정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표현 및 성찰 단계는 합창 수업 전반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다음 차시로 연결하는 핵심 단계로 기능한다.

교사는 가창의 결과를 기준으로 아동이 수업 과정에서 느낀 음성 사용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발문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어떤 소리가 편안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부담이 느껴졌는지”, “함께 노래할 때 자신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같은 질문은, 아동의 주의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동시키며, 음성 사용을 경험의 대상으로 재구성한다.

아울러 성찰은 개별 경험에서 집단적 합창 경험의 공유로 확장될 수 있다. 서로의 소리를 조화롭게 만드는 경험,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안정감이나 어려움을 나누는 활동은 합창을 수행 과제를 넘어 공동의 음악적 경험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공유 과정은 합창 활동이 서로의 소리를 인식하고 조정하는 관계적 경험임을 아동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성찰은 다음 차시 수업에서의 음성 사용과 참여 방식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연결된다. 아동은 이전 수업에서 인식한 자신의 음성 상태와 소리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활동에서 소리를 보다 주체적으로 조절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 및 성찰 단계는 단일 차시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음성 사용 경험이 누적되고 조정되는 연속적 학습 과정의 전환 지점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합창 수업은 매 차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이 아니라, 안전한 음성 사용과 지속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학습 과정으로 구조화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 합창 수업이 학예회, 학교 행사, 대외 발표와 같은 외부적 요구와 결합되면서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관행에서 벗어나,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을 기반으로 한 학습 경험 체계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학교 현장의 합창 수업은 제한된 시간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는 조건 속에서 일정한 음역과 음색을 기준으로 조직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음성 조건과 교육적 맥락에서 상충되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별 아동의 가창 능력이나 교사의 개인적 역량의 문제로 귀속하기보다, 수업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는 제도적·환경적 조건의 문제로 분석한 점은 중요한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또한 변성기 이전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에 기반하여 수업 설계의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합창 수업 설계의 핵심 원리로 체계화함으로써, 기존 합창

지도와 구별되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아동 음성의 생리적·음향적 특성을 토대로, 발달 기반 합창 수업 설계의 원리를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준비, 소리 탐색, 상상블 활동, 제재곡 학습, 표현 및 성창로 구성된 단계적 교수·학습 틀을 구성하여, 아동의 음성 사용이 수업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수업 설계는 합창 수업을 단일한 발성 기준이나 결과 중심 평가에 종속시키지 않고, 발달 단계에 기반한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합창 수업이 공동의 음악적 경험과 참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교육적 의미가 음성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된 수업 설계는 전문 합창 훈련에서 요구되는 음향적 완성도나 고도의 발성 통제를 직접적으로 지향하기보다, 아동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음성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의 소리가 점진적으로 조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일반 교실 수업 환경을 전제로 한 설계로서, 모든 아동이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수준에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수업 적용 가능성과 난이도에 대한 우려를 보완한다.

이상의 논의는 초등 합창 수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성악 기법의 숙련에 있지 않고, 아동의 발달 상태를 해석하고 수업 조건을 조율하는 교육과정적 판단 역량에 있음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학습의 틀은 교사가 합창 수업을 일회적 성과 산출의 과정이 아닌, 음성 경험의 축적을 중심으로 한 연속적 학습 과정으로 조직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교사 연수체계, 교육과정 해설자료, 수업 평가 기준 개선과 연계되어 발달 친화적 합창 수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등 합창 수업에서는 아동의 음성 발달 특성을 반영한 레퍼토리 구성과 수업 운영 기준이 교육과정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 학교나 학급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적용 사례나 실증적 효과 검증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개념적 설계 연구의 성격을 지니므로, 제안된 설계 원리와 교수·학습 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수업 맥락에 따라 조정·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변형되었는지를 장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발달 기반 합창 수업 모델의 현장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은 초등 합창 수업을 발달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

References

- Abramo, J. M. (2011). Gender differences of popular music production i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9(1), 21-43. <https://doi.org/10.1177/0022429410396093>
- Allsup, R. E. (2016). *Remixing the classroom: Toward an open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 Blagojević, J., & Habe, K. (2026). Youth well-being through choral singing: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https://doi.org/10.1177/02557614261418508>
- Burnard, P. (2012). *Musical creativities in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Cho, S. (2011). A study of a teaching plan applied with a cappella for chorus-course in the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3), 251-274.
- Clift, S., & Hancox, G. (2001). The perceived benefits of singing: Findings from preliminary surveys of a university college choral society.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121(4), 248-256. <https://doi.org/10.1177/146642400112100409>
- Custodero, L. A. (2005). Observable indicators of flow experi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musical engagement in young children. *Music Education Research*, 7(2), 185-209. <https://doi.org/10.1080/14613800500169431>
- Demorest, S. M., & Clements, A. (2007). Factors influencing the pitch-matching of junior high boy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5(4), 292-307. <https://doi.org/10.1177/0022429408317515>
- Dewankele, C., Van Lierde, K., Gonzales Redman, Y., Kissel, I., Adriaansen, A., Papeleu, T., Daelman, J., Bettens, K., Verbeke, J., Van der Straeten, C., Allemeersch, F., De Ryck, M., De Landtsheer, E., D'haeseleer, E., & Meerschman, I. (2025). The power of singing in childhood: Voice quality and voice-relate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choir singers. *Journal of Voice*. <https://doi.org/10.1016/j.jvoice.2025.04.001>
-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ott, D. J., & Silverman, M. (2015). *Music matt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Fernández-Herranz, N., & Ferreras-Mencía, S. (2023). Choral singing and personal well-bei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PBES scale. *Psychology of Music*, 51(6),

- 1981-1998. <https://doi.org/10.1177/03057356221094815>
- Ferrer, R., Puiggali, J., & Tesouro, M. (2018). Choral singing and the acquisition of educational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6(3), 336-346. <https://doi.org/10.1177/0255761418757344>
- Fussi, F. (2010). The child's voice. In R. T. Sataloff (Ed.), *Professional voice: The science and art of clinical care* (3rd ed., pp. 1043-1058). Plural Publishing.
- Hallam, S. (2015). The power of music: A research synthesis of the impact of actively making music on the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3(3), 285-301. <https://doi.org/10.1177/0255761415584296>
-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2016). *ISME declaration on music education*. <https://www.isme.org/about/isme-declaration>
- McAllister, A., Sundberg, J., & Hibi, S. (1994). Voice characteristic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Voice*, 8(2), 110-120. [https://doi.org/10.1016/S0892-1997\(05\)80314-0](https://doi.org/10.1016/S0892-1997(05)80314-0)
- Phillips, K. H. (2014). *Teaching kids to sing* (2nd ed.). Schirmer.
- Rodrigues, H., Rodrigues, P., & Giga, V. (2015). The influence of teaching songs with text and a neutral syllable on 4- to 9-year-old Portuguese children's vocal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3(4), 452-465. <https://doi.org/10.1177/0255761414563195>
- Rutkowski, J. (1997). The nature of children's singing voices: Characteristics and assessment.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3), 353-368.
- Welch, G. F. (2006). Singing and vocal development. In G. McPherson (Ed.), *The child as musician: A handbook of musical development* (pp. 311-329). Oxford University Press.
- Welch, G. F. (2012). The developing voice. In G. E. McPherson & G. F. Welch (Eds.), *The Oxford handbook of music education* (Vol. 1, pp. 433-450). Oxford University Press.
- Welch, G. F. (2025). Effects of a classroom-based group singing program on children's vocal development, health, and well-being. *Frontiers in Psychology*, 16, Article 1595834. <https://doi.org/10.3389/fpsyg.2025.1595834>
- Welch, G. F., & Howard, D. M. (2002). Gendered voice in the choral classroom.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18(1), 3-15. <https://doi.org/10.1177/1321103X020180010101>
- Welch, G. F., Saunders, J., Papageorgi, I., Himonides, E., Sarazin, M., & Stewart, C. (2014).

Singing and social inclu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2(3), 285-303.
<https://doi.org/10.1177/0255761413505950>

Yoon, S. (2012). An operational system design for chorus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4, 81-98.